

2026년 제1차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현대자동차 간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 체결

- 성공적인 제1차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의전 차량 지원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2026년 제1차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6년 7월 27일 (월) 오후 외교부 서회홀에서 현대자동차와 「2026년 제1차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준비기획단장 겸임)와 현대자동차 GPO(Global Policy Office) 김동조 전무가 양 기관을 대표하여 약정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업무협력약정은 2026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첫 한·중양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약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정상회의 기간 중 총 33대의 차량을 지원하여 중양아시아 5개국* 정상 및 배우자, 장관급 인사 등 주요 외빈들에 대한 원활하고 안전한 의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의혜 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가 한국과 중양아시아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지원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김동조 전무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에 의전 차량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그간 국내·외 주요 국제 행사에 차량을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업무협력약정 체결식 사진. 끝.

담당 부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책임자	부장	김남기 (02-2222-2120)
		담당자	사무관	임 빈 (02-2222-2122)

